1강 중세 건축의 특징

1교시 중세 건축의 시작

▲ 중세의 의미
중세건축 연표를 간단히 보면, 처음엔 프레 로마네스크(Pre-Romanesque)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대체적으로 750년경부터 850년경까지. 그리고 약간의 공백기 다음인 900년경부터 초기 로마네스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거기 차례를 보면 프랑스와 독일이 초기 로마네스크를 이끌어 가는데, 약간의 시차는 있어요.

프랑스가 조금 먼저 시작하지만 대체적으로 1050년경까지 초기 로마네스크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성기 로마네스크가 1050, 1060년부터 1150년경까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조금 특별나요. 저런 초기, 성기라는 분류가 무의미합니다. 영국은 대륙에서 형성된 로마네스크를 받아들여서, 대체로 1070년경부터 영국 노르만 양식이라고 하는 영국의 로마네스크 양식이 시작이 됩니다. 영국은 특별히 성기, 초기 구분 없이 1200년경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1150년부터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고딕으로 죽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중세건축의 큰 연표입니다.

중세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면, 중세는 일단 로마 문명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 문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로마 문명도 있지만 로마 시대 때 생긴 로마 기독교를 보면 초기 기독교, 초대 교회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요. 기독교는 기독교이되 고전 기독교, 이런 말은 로마 고전주의 내에 묶여 있었다는 말이고, 이게 중세로 오게 되면서 비로소 기독교다운 기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기독교 내부 사정을 보면(교회사라든가, 기독교 사상사에서 보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기원전 4~6세기에 기독교 사상이 처음 형성이 되는데 12세기에 오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서 기독교 사상의 완성점에 이르게 됩니다. 내용도 다를 뿐 아니라, 교회사, 기독교사를 보면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는 상당히 다릅니다. 건축적으로 보면 특히 그 차이가 두드러져서 로마 기독교까지를 1차 기독교 건축, 중세부터를 2차 기독교 건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기독교 건축 내에서도 중요한 분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우리가 유럽 문명이나 기독교 문명을 바라볼 때 로마에 있는 초대 기독교 건물과 프랑스에 있는 중세 기독교 건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중세를 문명사적으로 정의를 하면 서북 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대표 종교로 갖고, 봉건제도를 정치 체제로 농노제도를 경제 체제로 한, 대체적으로 800년경부터 1400~1500년까지 계속된 문명을 우리가 보통 중세라고 정의를 해요.
중세는 다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초기는 1050년경까지, 중기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050~1300년, 후기는 1300~1500년. 근데 이건 문명 차원, 정치사를 이야기할 때 나누는 구별이고 건축과는 조금 일치하지 않아요. 초기 중세는 프레 로마네스크부터 시작되는데 책 19페이지에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니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구요. 초기 중세 시작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 카롤링거 왕조

2차 기독교 건축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카롤링거 왕조(Carolingian dynasty)-프랑크 왕국이라고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북부 등,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굉장히 큰 나라예요. 쉽게 얘기해서 서북 유럽이 로마시대 때 점령을 당했다가 로마가 물러나고 최초로 서북 유럽을 통일한 나라라고 보면 돼요. 지금의 유럽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전신이 되는.

그다음에 카롤링거 왕조는 샤를마뉴라는 한 사람이 대표를 해요. 대제라는 말이 붙는. 역사적으로 대제라는 말은 몇 명에게 안 붙지만 이 사람에게는 붙죠.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때부터 시작이 되요. 이게 나중에 가면 동 프랑크, 서 프랑크, 중 프랑크 이런 식으로 갈라지면서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그 전까지 이탈리아는 로마 문명이었는데 이탈리아라는 작은 나라로) 국경선이 최초로 형성이 됩니다. 물론, 지금 국경선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기는 전쟁이 잦습니다. 슈트라스부르크(Strassburg)가 독일 땅인가? 프랑스 땅이라 스트라스부르라 부르나? 그 도시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예인데, 독일과 프랑스 국경선에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 등 변동이 심합니다. 대체적으로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현재 국경에 근접하게, 나중에 분리되면서 갈라지게 되는데 서북 유럽의 최초의 통일된 왕조가 등장하면서 중세 건축이 시작되는 걸로 볼 수 있죠.
카롤링거 왕조는 정치사적으로는 751년에서 843년, 이때를 의미하고 건축은 약간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왕조의 지도, 프랑크 왕국의 지도가 책 20페이지 [그림 4]에서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 로마 건축과 중세 건축의 차이

중세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쌍개념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대 중세, 그다음에 로마의 기반이었던 지중해, 중세의 기반인 서북 유럽, 땅과 하늘, 이게 대표적인 쌍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로마 대 중세라는 개념 먼저 살펴보면 로마 문명, 건축으로 봤을 때 로마 건축은 기본적으로 석구조고, 바실리카 유형을 기본 교회 기독교 유형으로 삼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 중세 문명은 서북 유럽에서 전통적인 건축 방식은 목구조 방식이죠. 나중에 잠깐 또 나오겠지만 사진을 보면(책 36페이지에 [그림 27, 28]) 이런 것들이 서북 유목 문명 로마니즘(Romanism), 유목민 문명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에요. 바실리카 유형에 비해서 유기구성이라고 합니다.

바실리카 유형은 건축적 형식과 윤곽이 정해져서 안으로 잘라 들어가는 방식이고(기독교 건축의 내용을) 유기구성은 요만큼 살다가 필요하면 더하는 식의, 생명체가 커가는 것과 같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거죠. 바실리카 유형은 처음부터 성인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유기구성은 어린애가 커가면서 생육 과정,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유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전까진 서북 유럽은 황무지였으니까(로마에 종속된)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서북 유럽이 중심지가 되면서 이런 전통(이전의 선례 문명이 없으면 중세도 없었던 거고)을 받아는 들이되, 문명의 중심지가 서북 유럽이 되면서 서북 유럽 내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 쌍개념을 이루고, 또 이게 하나로 통합되면서 중세 건축이 형성된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림 1]과 좀 전에 봤던 목구조, 36에 [그림 27] 그게 합해지면서 책 330 페이지에 [그림 503] 같은 건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1] 같은 로마 기독교 건축 방식과 [그림 27]과 같은 서북 유럽의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이 합쳐지면서 그걸 석구조로 번안하는, 그러니까 축조 방식은 로마 석구조, 접합 방식은 목구조, 이 둘이 합해지면서 중세 다발기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데가주망(degagement)이라고 하는 중세 건축만의 독특한 시공술이 발달하고 그 결과 [그림 503]과 같은 장면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 로마네스크

근데 이때의 통합은 로마적 연속성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로마네스크(Romanesque)라는 말을 보면 끄(que)라는 게 불어에서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답다는 얘기에요. 로마네스크는 로마다운 건축이라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중세와는 상관이 없어요, 명칭만 보면. 실제로 영국 같은 데서는 20세기 중반, 1950년경까지 건축사가들 사이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이름을 로마닉이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이전 문명을 완전히 부정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많이 안정이 되요. 4~5세기부터 로마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침입을 받았습니다. 로마를 침입한 문명은 여러 곳이 있었고 로마가 워낙 방대한 영토였기 때문에 일단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침입을 당한 것이지만 침입을 한 민족 쪽에서 봤을 때는 로마에 종속되었던 것을 되찾는, 독립운동 성격이었죠. 로마로의 침입은 여러 곳에서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게 서북 유럽, 중세문명을 이루었던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고트족, 반달족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북 유럽이 통일이 되어 가면서 로마 침입이 없어지고, 로마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면서 4세기, 5세기 때 침입 받아서 엄청 부서졌던 초대 교회를 복원하는 업무를 벌이게 되죠.

이게 또 프레-로마네스크 건축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해야 하나. 교황들이 특히 많이 주도했고 파스칼(pascal) 1세가 특히 두드러지게 저런 복원 작업을 주도한 교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원한 대표적인 건물이 책 24쪽 위에 보면 파스칼 1세, 카타콤을 발굴 정비하여 많은 성물들을 지상으로 옮겼고, 등등등. 중세 쪽에서 상당히 막막하죠, 자신들만의 기독교 건축을 형성해야 하는데, 맨 땅에다 하기는 그렇고 뭔가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1차적으로 로마 쪽에서 복원작업을 벌이면서 큰 도움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강 중세 건축의 특징

2교시 쌍개념으로 살펴보는 건축 유형

▲ 지중해와 대서양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지중해라는 개념과 서북 유럽입니다. 서북 유럽을 대서양이라고 많이 하는데, 대서양이라는 말이 문명의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한 건 15~16세기 이후예요. 그런데 이때는 지리상의 발견, 좋은 말로 할 때 지리상의 발견이고 막말로 배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노략질하고 다니는 거죠. 그 끝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만 엄밀하게는 발견이라고 할 수 없죠,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제일 처음 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당나라 때 중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갔었고 그다음에 9세기에 바이킹들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대서양이 중요해진 거죠.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는 바다니까.

중세 때는 대서양보다 서북 유럽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대륙성에 가까운 건축이에요. 지중해는 해양건축에 가까운데 해양과 대륙의 통합성이 두드러졌고 이때는 농업 문명, 땅의 문명을 이룹니다. 이에 비해 서북 유럽은 유목 문명이죠. 물론 중세 서북 유럽도 경제 기반은 농업이었는데, 사람들의 기질 같은 것이 다릅니다. equilibrium, cosmopolitanism은 로마 문명을 대표하는 개념들인데, 뭔가 통합을 해서 안정을 이루려는 것으로 지중해 쪽 사람들이 그런 성격이라면 서북 유럽으로 올수록 활성 기질이 상당히 강하죠.

원래 지중해 문명은 현상유지하면서 따뜻한 기후 속에서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거고, 이 서북 유럽, 서양 유럽 쪽 사람들은 사납고 호전적이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대체적인 건축 경향을 봐도 수평선(지중해) / 수직선(서북 유럽) 같은 대별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한 중앙집중적(지중해) / 연속적(서북 유럽), 이런 식의 문명 상의 큰 대별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걸(지중해) 기반으로 해서 이게(서북 유럽) 투영된,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건물이 수직적으로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갖는 하나의 기본 정치와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중해 로마 초대 교회에서는 땅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반해서, 이때 오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종교 건축들은, 그 바람이 탑이라는 개념으로 고대 시대부터 있던 개념이었어요.

고대 근동 쪽에 지부라트, 바벨탑이 그랬고, 피라미드도 탑 기능이 중요했죠. 동양 건축에서도 탑화 건축은 황명사 9층탑 같은 경우 100미터가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절 앞에 있는 그런 조그만 탑 말구요.) 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직 높이를 얻어내는 데 중요한 건물 기능 유형인데, 서양이 특히 그게 심했죠. 동양의 조그마한, 아담한 조각물로서의 탑이 아니라(동양의 탑은 무덤 기능을 겸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서양은 탑 자체가 수직 자체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런 탑 개념이 여기에 더해지면서 중세 기독교 건축은 기본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라가는, 앙천선이라는 말로 그 특징을 드러내죠. 앙은 우러러본다는 의미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수직선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고딕 성당으로 집결이 됩니다. 34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해서 로마 건축을 모델로 삼고 거기에 서북 유럽의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이 합해지면서 중세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때 찾은 로마 건축의 선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로마 건축에서 찾은 선례

34페이지 보면 초기 기독교 시절 서북 유럽 지역에 지어진 기독교 건축물, 두 번째는 동시대의 비잔틴 건축. 이 중세 유럽 문명이 시작되던 8~9세기 때 유럽은 상당히 후진 지역이었습니다. 샤를마뉴 대제의 카롤링거 왕조가 처음으로 거기에, 그나마 문명을 만든 거였고, 그 이전까지는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고유 문명은 셀틱이라고 하는 상당히 원시 상태의 문명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로마는 이미 망해 있었고) 문명은 동방 쪽에 있었어요. 중국, 이슬람권, 비잔틴(동방기독교) 쪽.

중국은 너무 멀고, 이슬람은 종교적 차이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기독교권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은 동방기독교였던 비잔틴 문명권이었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탈리아 반도 내 롬바르디아 지방의 건축. 롬바르디아는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밀라노에서 베로나에 이르는.
아까 지도를 보면, 20페이지 [그림 4] 보라색 밑에 보면 LOMBARDY라고 되어 있어요. 살구색으로 칠해진 영토인데, 이때는 롬바르디아가 왕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넓었던 거고, 지금의 롬바르디아는 이태리 주 중에 하나인데 이것보다 많이 축소되었죠.

밀라노와 베로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이탈리아에서도 독특한 지역이에요. 알프스 바로 밑에 있는 토리노에서부터 알프스 위쪽에 있는 서북 유럽과 그 아래 이탈리아 반도의 남유럽이 충돌하는 지역이에요, 두 지역이. 지금은 오래전부터 알프스 산맥 때문에 이탈리아 소속이긴 했는데 롬바르디아라는 왕국은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고, 그래서 민족적으로 봐도 독일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베로나 같은 데 가면 독일어가 다 통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밀라노가 특히 공업이 일찍부터 발달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게르만족과의 연관성,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로 다른 두 문명이 통합할 때 상당히 중요한 접착제 내지는 끈 역할을 한 지역이어서, 이 지역에 남아 있던 여러 가지 로마 유적들을 선례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세 전통 방식, 그런 로마 시대 선례를 모델로 삼아서 직사각형 평면에 유기적으로 발달해가는 구성, 목조 접합식, 경사 지붕이 특징입니다. 로마 건축은 석조 조적식이고 기본적으로 평지붕이죠, 헬레니즘권은. 이 둘은 상당히 다릅니다. 접합식이라는 것은 구재를 말 그대로, 조적을 차곡차곡 쌓는 거고 접합은 [그림 29]처럼 서로 이어 가면서 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 같은 게 접합식이고 벽돌, 돌 이런 게 조적식이죠.

나무를 가지고도 조적식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목구조는, 철골이나 목조 같은 선형 구재들을 많이 쓰는 재료는 접합식이 제일 맞고, 돌이나 벽돌처럼 사각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형 단위의 구재들을 쓰는 방식은 조적식이 잘 맞는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 땅과 하늘

그 다음은 땅과 하늘이라는 주제입니다. 초대 기독교, 지중해 건축이 땅의 건축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때 나온 게 고전 오더죠. 고전 오더만의 정밀한 비례 체계와 상징성-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식-은 중세로 오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요.

그런데 건축 방식은 그대로 이어 받고(구조 체계로서의 오더는 이어 받는데) 거기에 따라붙는 정신적 가치들은 이때 오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더가 중세 예술, 돋을새김 같은 걸 새기는 바탕면이 되는 거죠. 벽체가 제일 큰 바탕면입니다. 중세 미술사를 보면 [그림 38] 같은 예들이 등장해요. 이게 바탕면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그림 38] 보면 오른쪽 기둥 아래쪽을 보면 코린토식 주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을 보면 주두가 코린토식 주두가 아니라 전부 성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돋을새김 미술풍으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기독교적 집중성이 강해지는 거죠. 벽체에다가 이런 성화 개념(보통 icon(도상)이라고 하는데), 성화들을 벽체에다 그리는 것은 초기 기독교나 비잔틴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주두가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중세에 오게 되면 주두 자리까지 내놓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오더는 단순 구조 부재가 되는 거고 어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적 집중성이 강해지면서 앞에 얘기한 수직성, 혹은 활성(서북 유럽 민족만의 특성)과 합쳐지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로마네스크 때 오게 되면 일부 수직 높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로마네스크 건축은 돌의 물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치중하면서 땅의 개념이 중첩돼서 나타나죠. 이때 땅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돌의 물성을 띠고 나타나는 땅의 개념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농축된, 압축된 그런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을 보면, 로마네스크 대가 서북 유럽은 독자적인 문명을 처음 이룬 시기라(처음 시작할 때 뭐든지 활성되는 것처럼) 굉장히 건축 활동이 많이 일어나요.

주요 건축만 해도 영불독 세 나라를 중심으로 천 체 이상이 지어집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은 유럽에 가면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로마네스크 건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땅은 땅이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로마네스크 건축은 상당히 추상성이 강하면서도 도리어 돌의 물성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고딕 시대 때)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그 어떤 에너지, 잠재력, 가능성을 농축해서 담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와 농촌

그다음에 볼 것은 도시와 농촌입니다. 물론 로마 시대 때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 군사 도시, 혹은 교역 도시였어요. 농촌은 그야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로 밀을 제공하는 농업이 주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로 오게 되면 기독교 도시로 바뀌게 돼요. 농촌도 단순히 밀을 생산해서 도시나 군사에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하부구조가 아니라 농촌 자체가 또 하나의 기독교적 역할을 갖게 되면서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로마네스크는 서북 유럽으로 처음 문명이 전파됐는데, 아직 거기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여서 도시들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천년 이상 끌어온 지중해의 그리스 로마 문명 때의 막 엄청나게 큰 도시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줄 거점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물류나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황무지만 달려서 갈 수도 없는 거고, 이 공간을 다 문명으로 채우기엔 시기적으로 빠르고요. 이러한 도시들 사이의 중간 거점 역할을 농촌이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아직 본격적으로 성장을 못하고요. 그래서 로마네스크는 기본적으로 농업 문명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2~300년 다져서 고딕 시대로 오게 되면서 서북 유럽의 대도시, 메트로폴리스가 고딕 성당을 중심으로 가지면서 최초로 형성이 되요. 고딕 시대는 도시 문명이고, 로마네스크는 기본적으로 농촌 문명이에요. 로마네스크 건물은 농촌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도시 속에도 있지만. 고딕 건물은 대부분 성채나 캐슬이나 대도시 안의 성당으로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문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 [그림 49]예요. 프랑스 남부 농업 지역에서 찍은 건데, 로마네스크 문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땅과 농업을 중심으로 하되, 그 땅이 로마 시대의 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서가 교회죠.

로마네스크 때 도시가 생기는데 초기 중세 기독교 건축은 네 방향으로 전개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첫째, 로마 시대의 도시가 그대로 지속된 것 둘째, 도시에서 탈피한 농촌 문명의 성립. 로마네스크 문명이 기본적으로 농촌 문명이라는 사실은 농촌이 기독교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데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교구라는 단위가 형성되는 거죠.

로마 기독교 때는 없었던 농촌 단위의 새로운 종교 구역인 교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만 있던 교회가 농촌에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로마의 새로운 현상이죠. 로마 시대 때 기독교 건축은 기존에 있었던 고전적인 contaxt 로마적 contaxt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엉덩이 하나 붙이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 모습이 [그림 48]이에요.

거기 보면, 오른쪽에 삼각형 지붕을 가진 바실리카 교회가 있고 나머지들은 고대 로마적인 도시 배경입니다. 그 사이 사이에 한자리씩 비집고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게 중세 때 오게 되면서 기독교만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게 [그림 50]의 모습이죠. 성당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종교 권력을 견제하는 왕궁, 시민 권력을 대표하는 시청사나 시민회관, 주민회관 그 세 건물이 광장의 세 면을 하나씩 차지해요.

한쪽은 가게, 일반 주거들. 그래서 광장을 중심으로 그런 중세문명을 지탱하던 세 가지 권력 체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중세 기독교 도시의 모습을 이루고 네 번째는 수도원이에요. 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부분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수도원의 시작은 서기 4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초기 기독교 때 수도원은 아주 외딴 데에 수도사들끼리 모여서 그야말로 수도만 하는, 기독교적 내부의 아주 폐쇄적인 집단이었는데, 이게 로마네스크로 오게 되면서 수도원이 현실 세계에 관여하게 돼요.

수도원이 독립적으로 농노도 거느리고 거기서 세금도 얻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도원이 경제, 문화, 학문, 예술 등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에요. 특히 학문, 예술을 보면 종교를 매개로 고대 그리스 철학 같은 것들이 로마와 서북 유럽에 전파되죠. 서양의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동방 사상들. 이런 사상들이 전파되는 경로가 종교 경로가 제일 컸어요. 이 당시에 희랍 철학을 가장 잘 가르쳤던 곳은 수도원 안의 학교였다는 것이죠. 예술가들에게 돈을 주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게 뒷받침할 수 있게 후원할 수 있는 경제력과 예술적 안목을 갖추고 있던 곳도 수도원이었어요.

이 수도원이 기독교 문명을 형성하는 데에는 찬반양론이 있고, 수도 공간이어야 하는 수도원이 현실 세계에 관여하면서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중세 기독교 문명이 형성되는 데에 수도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쌍개념, 기독교적 의미에서 쌍개념이 형성됐고, 그 결과 나타난 게 성당, 교구 교회, 바실리카입니다. 주교급이 운영하는 교회를 성당이라고 불러요. (카톨릭은 군대나 공무원 조직처럼 계급체계예요. 계급 위계가 엄격하죠. 주교급은 인구 규모 같은 것에 따라 나뉩니다.)

cathedral. 그다음에 특히 큰 도시는 대주교라고 그러죠. 주교(bishop), 대주교(archbishop) 그보다 더 높은 게 추기경이고.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교구 교회는 parish church라고 하는데(교구 단위를 나타내는 말) 장로나 집사가 파견이 돼요, 성당에서. 장로나 집사는 카톨릭에서 나온 직책 이름 내지는 신교에서 쓰는데, 장로나 집사가 파견되어서 소도시와 농촌의 일정 구역을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게 바실리카라는 건데, 초대 기독교에서도 바실리카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에요. 바실리카는 원래 로마 시대부터 있던 공민 회관. 초대 기독교에서의 교회 양식, 교회 타입. 세 번째는 중세 때(로마네스크 때) 새로 등장한 교회 타입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성인들의 무덤을 중심으로 한 기념비적인 성격이 있는 교회 유형을 바실리카라고 해요.

저런 교회는 농촌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길목에 많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성당과 교구 교회 사이에는 등급이 있는 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카톨릭 자체가 체계가 그러니까요. 바실리카는 위계와는 한 발 떨어져서(물론 성당보다는 등급이 낮은 교회지만), 기본 성격이 미사 중심이 아니라, 순교자나 성인들의 무덤을 주로 모시는 기념비적 성격이 강한 교회 타입을 바실리카라고 합니다. 이상이 중세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세 기본적인 키워드들, 그걸 건축적인 관점에서 본 중세 개념의 중요한 키워드들이었고 프레 로마네스크의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겠어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강 중세 건축의 특징

3교시 아헨 왕궁 예배당과 선형 교회

▲ 아헨 왕궁 예배당의 특징

카롤링거 왕조 때 샤를마뉴 대제가 건축 활동을 많이 했죠. 옛날에는 권력자들이 건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 거죠. 자본주의 시대부터는 그런 현상이 조금 없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아헨(Aachen)에 있는 왕궁 예배당이에요. 이건 비잔틴 때 라벤나(ravenna)에 있는 산비탈레를 모델로 삼아서 만든 8각형 중앙집중형 건물입니다. 근데 6가지 차이가 나타요. 로마네스크 중세적 성격을 결정짓는 단서가 되는 거죠.

첫째, 기하학적으로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산비탈레는 책에 안 나와 있지만) 아헨 성당의 평면([그림 65])을 보면 기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됐다는 이야기가 뭔지 알 수 있죠. 복도 부분, 반지 부분에 해당하는 점선이 천장 도면을 평면에 같이 섞어 표현한 것인데, 바깥은 16각형이고 안은 8각형이죠. 기하학적 윤곽을 더 작은 기하 단위로, 규칙적으로 구획해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산비탈레 평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루즈해요. 기하학적으로 훨씬 정리가 덜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둘째, 아헨 성당에서는 직설적(직선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에요. 산비탈레는 부유 공간(떠다닌다는 의미), 탈물질화를 대표하는, 형체의 경계를 지운 비물질적인 공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오게 되면서 직설적 분위기가 강하게 지배됩니다. 돌의 물성, 이런 게 아주 솔직하게 표현돼요. 산비탈레 쪽에서는 돌의 물성을 가능한 지워서 투명한 막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죠.

셋째, 수직 구성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그림 67]을 보면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입면상으로도 수직 구성의 단수가 많아진 걸 볼 수 있고, 속의 구조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그림 68]처럼 수직 구성이 단수가 늘어나는, 이런 식의 변화가 있게 되죠.

넷째, 천장에서 다각형 평면과 볼트 천장 사이의 일치 정도가 증가합니다. 산비탈레는 일치가 거의 없었어요. 일치란 이야기는 그로인 볼트를 도입해서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반지형 벽 공간으로 보게 되면, 이걸 배럴볼트(barrel vault)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8각형이 되고 바깥은 원에 가까운 16각형이 되면서 이런 불일치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럴 볼트로만 덮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게 [그림 70]입니다. [그림 65]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삼각형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면 기하학적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인 동시에 구조적으로 보면 그로인 볼트(groin vault)볼트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그로인 볼트는 평면상 정사각형이 나올 수 없으니까 비정형 조각을 그로인 볼트로 하고 작은 삼각형 조각을 만드는 거죠. 이것 자체가 불완전하지만 그로인 볼트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런 작은 조각으로 나머지 불일치 공간을 채우게 되는 거죠. 이 작은 조각을 루넷(lunette)이라고 불러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루넷을 쓸 수 있게 되면서 그로인 볼트로 천장 구조를 받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배럴 볼트 때보다 내력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 수직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밑바탕이 돼요.

옛날에는 학교나 교재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인들이 새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여행을 떠나요. 건축의 교육을 보면 중세까지는 여행과 구전(비전)이 중심이 됩니다. 장인 두목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일대일로 맘에 드는 사람에게만 비밀스럽게 말로 가르쳐 주는 거죠.(르네상스 때 들어와서 책도 쓰고 학교도 생기고, 설계사무소도 생기게 되죠.)

장인은 일정 부분은 위의 장인들에게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여행에 가서 먼저 지어진 건물을 면밀히 관찰하며 배웁니다. 그래서 아헨 성당은 나중에 초기 로마네스크 생길 때 상당히 많은 장인들이 와서 보고 갔던 건물이죠. 그래서 이런 루넷과 그로인 볼트를 썼다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다섯째, 기하학적 정리는 모듈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직성이 증가됐습니다. 산비탈레에서 지름 대 높이의 비가 1:1.78이었던 게 아헨 성당에서는 2.1로 커졌어요. 이상의 6가지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6가지 차이만 다 합쳐놓으면 이전 로마시대 때 초대 기독교 건축보다는 발전 변화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반면에 퇴보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6가지를 얻기 위해서 쏟아 부은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벽체가 너무 두꺼워요.

산비탈레 같은 경우는 지붕에다 속이 빈 항아리를 얹어 경량화 시키고, 벽체 면적도 많이 얇아졌는데, 아헨 성당에서 수직비가 1.78에서 2.1로 늘었다고 하지만 벽체 두께를 대입한 효율 개념에서 보면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하지만 퇴보로 볼지의 문제는 로마적 종합화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어요. 산비탈레 구조 공법으로는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 당시 기술로는 건물의 한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물이었지만 향후 발전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산비탈레는 그걸로 끝이죠.

▲ 아헨 성당의 의의
그런데 이 건물(아헨 성당)은 건물만 놓고 보면 비효율적으로 퇴보하고 있지만, 로마네스크가 꽝꽝 뭉쳐서 나중에 죽죽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퇴보보다 새로운 문명의 출현을 알리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양면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다단계로 양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역사 공부의 매력이죠.

그래서 68페이지 중간 아래를 보면 “이상을 종합하면 아헨 왕궁 예배당은 산비탈레 공간 구도를…” 아참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이게 왜 로마적 종합화냐면 공간 구조는 산비탈레를 모델로 삼았는데, 구조 방식은 콜로세움을 모델로 삼았어요, 샤를마뉴 대제가. 이 점 자체가 샤를마뉴 대제의 정치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동방에 신세를 지는 것보다 유럽적인 토대 위에서 자기네들끼리 꾸려가 보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콜로세움은 효율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무식하죠. 산비탈레처럼 첨단이나 날렵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상을 종합하면 아헨 왕궁 예배당은 산비탈레 공간 구도를 콜로세움의 구조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게르만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아헨 예배당의 영향을 받은 건물 리스트가 69페이지에 보면 죽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헨 왕국 예배당은 중앙집중형 건물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 선형 교회 양식-라틴 크로스

그다음에 선형 교회. 중세 교회는 대부분 성당으로 대표되는 선형 양식이 대표해요. 라틴 크로스가 대표적인 유형인데, 이 라틴 코로스의 초기 형태는 초기 기독교 때 잡혔어요. 바실리카 교회는 일자 직사각형인데 트란셉트(trancept)가 달라붙으면서 라틴 크로스 형으로의 발전이 있었죠. 초대 기독교까지도 이런 발전이 있었고, 이게 중세에 오게 되면서 일단은 규모 면에서 확장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복합분화가 되요.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초대 기독교까지 라틴 크로스는 심플한 윤곽과 실내 구성을 가졌는데, 중세 고딕 성당에 오게 되면 윤곽은 크게 보면 라틴 크로스가 맞는데 방 나눈 거나 속에 들어간 기능, 공간 분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죠. 발전의 초창기 양상이 프레 로마네스크 때 선형 교회 때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프레 로마네스크 때 나타났던 발전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westwork와 estend. 동서 방향으로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라틴 크로스의 출입구(성당은 항상 서쪽이 출입구)가 수평 방향으로 덩치가 커져요. 수직적으로도, 출입구인데 2층으로 지어지죠. 1층은 통로고 2층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요. 그리고 그 위에 첨탑에 얹어져요. 이렇게 덩치가 커진 서쪽 부분을 westwork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동쪽도 초대 기독교까지는 앱스(Apse)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복도를 가지면서 겹공간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채플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한 공간이 커지면서 성가대 석도 확장이 되고, 부속실도 들어가게 되는 등 서쪽도 커지고 동쪽도 커져요. 이렇게 커진 서쪽을 westwork라고 부르고 동쪽은 estend라고 불러요. 동쪽은 기본적으로 성소들이 많이 배치되면서 커졌어요. (채플, 미사 드릴 때 쓰는 물건들 보관하는 장소 성구소 이런 것들) 동쪽은 기본적으로 성소 중심으로 커지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때부터 그랬죠. 동쪽을 head piece라고 해서 이 동쪽 끝이 성과 관련된 기능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었죠.

서쪽이 커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걸 하나의 별도의 공간으로(물론 작은 예배실이라든가, 교육실, 여러 가지 창고, 부속실이 필요했는데 이것들은 교회 내부적인 속의 공간인 거고) 추가 별도의 건물로 성당을 2개의 공간으로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왜그러느냐면 황제나 왕, 혹은 기부자들이 성당 내에 자신들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디다 두겠어요. 실제로 2층에 황제가 앉는 옥좌 같은 게 놓인 공간이 있었죠. 황제가 방문하면 일반 성도 석에 앉을 수도 없고 제단에 앉힐 수도 없어서 황제가 앉을 만한 공간을 만들다 보니깐 2층에 황제나 세속 권력자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된 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리고 수직선이 필요해지면서 탑을 둬야 되는데, 골조가 높아지는 게 수직선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고 두 번째는 그 위에다(사람이 일단 키가 커야 하고 모자를 높은 걸 쓰면 커보이는 것처럼) 탑을 두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높이를 높이는 거긴 한데, 탑을 두려면 구조적으로 아래에서 상당히 잘 받쳐줘야 돼요. 탑 아래에 내력 구조를 보강하는 과정에 westwork가 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프레 로마네스크 때 나타나는 발전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선형 교회의 발전을 돕는 내용으로 의식 행렬, 기본적으로 선형공간은 행렬을 중심으로, 미사 때 사제단의 행렬이라고 하는 의식을 위해 생긴 공간 형태고 중앙집중형은 무덤 중심으로 감성적 교류를 나누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행렬이 프리 로마네스크 때 오면 발전하게 돼요, 그 내용이 7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스테이션 교회가 예수의 순환을 나타내는 십자가 행로의 14처를 의미한다는 것은 종교적 해석이고 실제로 스테이션 교회는 작은 교회들에서 행렬을 죽 해서 모이는 중앙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발전하면서 금욕제의 날뿐만 아니라 매일 행렬이 있게 되죠. 그전까지는 행렬이 성당 내에서만 있었는데 프리 로마네스크 때 오게 되면서 교회에서 교회로의 행렬이 생겨나게 돼요. 밖에서부터 오던 행렬이 건물 안에 들어와 종교적 감흥을 유지하면서 행렬을 유지하여 성당소에 가서 클라이맥스에 이르죠. 그런 시퀀스 개념을 강화하다 보니까 선형성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림 87]이 그걸 대표하는 프레 로마네스크 때 선형 공간을 대표하는 생리퀴에라는 건물이에요.

그다음에 선형 공간이 발전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성가예요. 프레 로마네스크 때 처음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성가가 작곡이 되고 성당에서 불리게 되는데, 초기 성가는 단음이에요. 단음에서는 잔향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앙집중형 공간은 음이 서로 충돌을 해 난반사가 되는데 선형 공간은 잔향 시간이 은은하게 쫙 울려 퍼지죠. 그래서 성가가 성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데에 선형 공간이 유리하다는 거죠. 공간이 길고 깊을수록 화음의 깊이가 풍부해집니다. 실제로 비트루비우스가 자신의 바실리카 건물에 비트루비우스의 단지라고 불리는 항아리를 놓고 음향 잔향 효과를 배가시키는 그런 가이드를 준 게 있어요, [그림 88]에. 이런 식으로 잔향 시간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